

## 정신약물 복용과 관련된 국내 간호연구의 고찰

이종은\* · 배정미\*\* · 임숙빈\*\*\*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국내 주요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이 18~64세 인구의 10.2%로 매년 약 368명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일상생활능력을 저하시키는 만성적이고 소모적인 정신건강문제를 유발하며,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조현병의 경우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병하여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환자의 40~60%가 일생동안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u et al., 2005).

지금까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증상 관리를 위하여 약물요법, 정신요법, 환경요법 및 활동요법 등 다양한 중재법이 시행되어 왔는데, 정신질환자의 성공적인 재활은 약물의 이행도를 높이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으

로써 촉진될 수 있다(Hwang, 2003). 특히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스스로 증상을 관리하는 능력을 증진시켜 장기적으로 재발 및 재입원을 감소시키고, 성공적인 재활 및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하여 약물 관리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약물 복용이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 결과들(Kang, 2010; Ruscher, Wit, & Mazmanian, 1997; Shon, Bae, & Jun, 2001)에서 약물이행이 저조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Usher (2008)는 조현병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정신성약물의 투여이며, 환자들에게 있어서 약물복용은 그들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하였다. Ruscher 등(1997)은 정신질환자의 65.8%가 약물을 의사의 처방과는 다른 시간에 다른 용량으로 복용한 경험이 있었고, 47.3%는 약물을 스스로 끊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간호와 치료에 있어 약물의 지속적인 복용은 대단히 중요한데 비하여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의 복용 이행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면 정신질환자의 간호에서 환자의 약물 복용 이행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

\* 상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imsb@eulji.ac.kr)

투고일: 2013년 8월 1일 심사완료일: 2013년 8월 4일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15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Im, Sookbin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143-5 Yongdu-dong Jung-gu, Daejeon 301-746, Korea  
Tel: 82-42-259-1711 Fax: 82-42-259-1709 E-mail: imsb@eulji.ac.kr

한 업무라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계기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사회 재활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어 적극적인 재활을 위한 도움과 서비스가 요구되므로,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스스로 증상을 관리하는 능력을 증진시켜 장기적으로 재발 및 재입원을 감소시키고, 성공적인 재활 및 사회복귀를 달성하기 위하여 약물 관리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신약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약물복용 이행도(Hong, 2004 ; Kim, 1993 ; Shin, 2001), 약물 및 증상관리에 대한 지식(Kang, 2010 ; Seo, 2001 ; Shon et al., 2001), 약물복용 및 증상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Hwang, 2003 ; Ko, 2006 ; Seo & Kim, 2009 ; Shon, 2009 ; Yeo, Song, Yu, Kim, & Lee, 2001) 약물 부작용 중재 프로그램(Kim & Cho, 2007 ; Kim, 2013 ; Lee & Kang, 2001 ; Kim, Sung, Hwang, & Kim, 2005 ; Yang, 1992), 및 질적 연구로 항정신성 약물복용경험 (Kim 2007 ; Song, 2010 ; Yun et al., 2006)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도 보다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통한 국민건강향상을 위하여 근거중심실무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도 정신약물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과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Lee, Paik, Choi, Kang, & Park, 2012).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성정신질환자들은 보건간호 영역과 정신간호 영역이 함께 돌볼 수 있는 대상자들과 있다고 생각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공유할 만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근거중심의학 (EBM) 방법론의 문헌검색 (review article) 기법을 통해 발표 시기, 연구 설계 유형, 대상자, 측정도구 및 관련 변수, 중재 프로그램, 주요 연구결과 동향으로 정신약물 복용과 관련된 국내 간호연구 자료를 평가하였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정신약물 복용과 관련된 연구를 발표시기별로 확인하고, 연구설계 유형을 비교한다.
- 정신약물 복용과 관련 있는 연구의 대상자를 파악한다.
- 주요 측정도구 및 관련변수를 분석한다.
- 중재 프로그램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한다.
- 정신약물 복용과 관련 있는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그 동향을 분석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논문의 선정

본 연구는 국내 주요 간호학술지 및 의학, 보건관련 학술지에서 주요 용어에 '정신약물'이 포함되고, 연구자로 간호학자 1인 이상을 포함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2년 처음 관련논문이 발표된 이후 2013년 7월 현재까지의 학술논문 전수를 조사하였다. 자료 검색은 KISS, earticle.net, DBPIA, RISS, KMBASE, RICH, 교보문고 스콜라, 국회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대한간호협회 간호정보도서관 등의 DB를 사용하였다. 검색어로 정신약물, 항정신병약물, 정신질환자 & 약물, 정신 & 약, 약물교육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찾아낸 논문들을 목록화한 뒤 추후 논문 원본을 찾아 정신약물 개념이 있는 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논문 제목이나 주요 용어에 위의 검색어가 나타나지 않은 논문은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그 중 한 편만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 학위논문 17편과 학술논문 17편, 총 34편이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34편의 논문 중 인터넷으로 원문 탐색이 불가능한 3편의 학위논문과 1편의 학술논문은 초록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목록화하고 일부 분석에서 이를 제외하였다(Figure 1, 2).

### 2. 대상 논문의 분석

대상 논문의 발표연도 및 연구설계 : 1992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기간을 5년 단위로 정리하고 조사연

ID	원문	제목	출처	발표 연도	저자	연구설계	연구대상	자료수집방법	연구도구	자료분석	관련변수	정의	연구결과	제언
학1	0	정신질환자의 증상신약학률 무작용과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질	4사-이매디	2010	김미옥	사설·정신과 연구	형성신약학률에 관한 질 설문조사		LUNSFERS(한국근대비행항공사승무원부작용양자도 DA-10(알로페리도졸)과 도, WHOOL-BRF(한국내과내과진단기구형외과진단형외과)	t-test, Pearson's correlation		/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총 117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평균 응답률 68%)를 통해 형성신약학률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학2	0	아동성인분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사-이매디	2010	송은주	사설·정신과 연구	Morse와 Field(1995)가 제시한 아동성인분별능력의 기준에 따라 11-16세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여, 아동성인분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11-16세 아동 100명 11-12세 아동 50명, 13-16세 아동 50명 11-12세 아동 50명, 13-16세 아동 50명	/	/	/	/	아동성인분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아동성인분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학3	0	정신질환자의 증상신약학률 무작용과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질	4사-강원대	2007	김정옥	사설·정신과 연구	C-극점신약학률에 관한 질 설문조사	11-16세 아동 100명 11-12세 아동 50명, 13-16세 아동 50명	/	Apr(1980)의 아동성인분별능력 기준에 따라 11-16세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여, 아동성인분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	/	아동성인분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아동성인분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학4	HC	정신질환자의 증상신약학률 무작용과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질	4사-중앙대	2004	황하나	사설·정신과 연구	정신질환자의 증상신약학률 무작용과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질환자의 증상신약학률 무작용과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질환자의 증상신약학률 무작용과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PSS win 10.0, t-test, ANOVA, Tukey's post-hoc test, Pearson's Correlation	정신질환자의 증상신약학률 무작용과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정신질환자의 증상신약학률 무작용과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아동성인분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학5	0	정신질환자의 증상신약학률 무작용과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질	4사-강원대 육대원	2003	황은숙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설 실험	C-극점신약학률에 관한 질 설문조사	정신질환자의 증상신약학률 무작용과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질환자의 증상신약학률 무작용과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PSS/WIN. 카이검정, t-test, MANOVA	정신질환자의 증상신약학률 무작용과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정신질환자의 증상신약학률 무작용과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아동성인분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Figure 1. Dissertation List

● 정신인류학 분야 학제적 연구의 고찰 ●

ID	문헌	저자	출처	발표 연도	차이	연구 설계	연구 대상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도구	자료 분석	관련 변수	중요	연구 결과	제언
학6	HC&O 인공과목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지도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박민준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비동등성 대조군 실험 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1개 대학의 심리학 전공 학생 100명	1개 대학의 심리학 전공 학생 100명	자기지도 학습 프로그램 사용 전후의 인지능력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전, 중점, 사후 검사를 실시함	SPSS PC+, SPSS (PC+), KAPPA, t-test	인공지능, 인공과목, 자기지도 학습, 인지능력 향상	인공지능, 인공과목, 자기지도 학습, 인지능력 향상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학7	○ 기생충 공생체 연구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지도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송미숙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비동등성 대조군 실험 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1개 대학의 심리학 전공 학생 100명	1개 대학의 심리학 전공 학생 100명	자기지도 학습 프로그램 사용 전후의 인지능력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전, 중점, 사후 검사를 실시함	SPSS Win, SPSS (PC+), KAPPA, t-test, Mann-Whitney U 검정, ANCOVA	인공지능, 인공과목, 자기지도 학습, 인지능력 향상	인공지능, 인공과목, 자기지도 학습, 인지능력 향상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학8	○ 기생충 공생체 연구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지도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신경숙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비동등성 대조군 실험 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1개 대학의 심리학 전공 학생 100명	1개 대학의 심리학 전공 학생 100명	자기지도 학습 프로그램 사용 전후의 인지능력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전, 중점, 사후 검사를 실시함	SAS, KAPPA, SPSS, t-test, Mann-Whitney U 검정, ANCOVA	인공지능, 인공과목, 자기지도 학습, 인지능력 향상	인공지능, 인공과목, 자기지도 학습, 인지능력 향상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학9	HC&O 인공과목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지도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서미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비동등성 대조군 실험 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1개 대학의 심리학 전공 학생 100명	1개 대학의 심리학 전공 학생 100명	자기지도 학습 프로그램 사용 전후의 인지능력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전, 중점, 사후 검사를 실시함	SPSS PC, SPSS (PC+), KAPPA, t-test, Mann-Whitney U 검정, ANCOVA	인공지능, 인공과목, 자기지도 학습, 인지능력 향상	인공지능, 인공과목, 자기지도 학습, 인지능력 향상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학10	○ 인공과목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지도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정호수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비동등성 대조군 실험 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1개 대학의 심리학 전공 학생 100명	1개 대학의 심리학 전공 학생 100명	자기지도 학습 프로그램 사용 전후의 인지능력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전, 중점, 사후 검사를 실시함	SPSS PC+, SPSS (PC+), KAPPA, t-test, Mann-Whitney U Test, Wilcoxon Rank Sum Test, Sign Rank Test	인공지능, 인공과목, 자기지도 학습, 인지능력 향상	인공지능, 인공과목, 자기지도 학습, 인지능력 향상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학11	조חק 인공과목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지도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이영희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비동등성 대조군 실험 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1개 대학의 심리학 전공 학생 100명	1개 대학의 심리학 전공 학생 100명	자기지도 학습 프로그램 사용 전후의 인지능력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전, 중점, 사후 검사를 실시함	SPSS PC+, SPSS (PC+), KAPPA, t-test, Mann-Whitney U Test, Wilcoxon Rank Sum Test, Sign Rank Test	인공지능, 인공과목, 자기지도 학습, 인지능력 향상	인공지능, 인공과목, 자기지도 학습, 인지능력 향상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학12	조חק 인공과목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지도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이영희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비동등성 대조군 실험 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1개 대학의 심리학 전공 학생 100명	1개 대학의 심리학 전공 학생 100명	자기지도 학습 프로그램 사용 전후의 인지능력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전, 중점, 사후 검사를 실시함	SPSS, t-test, Pearson's correlation	인공지능, 인공과목, 자기지도 학습, 인지능력 향상	인공지능, 인공과목, 자기지도 학습, 인지능력 향상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인공과목 학습 후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

Figure 1. Dissertation List (continued)

ID	원문	제목	출처	발표 연도	저자	연구 설계	연구 대상	자본수집법	연구 도구	자료 분석	관련 변수	중지	연구 결과	제언
학13	초록 의문	간호교육(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1998	김영숙	무작위 실험 연구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SPSS/PC+, t-test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학14	0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1997	손경희	비동등성 대조군 무작위 실험 연구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SAS, 카이제 검정, Scheffe's test, Wilcoxon 비 모수적 2표본 검정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학15	HC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1992	양수	무작위 실험 연구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반입수 및 빈 비율도 (McMillan & William) 및 생체동양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학16	0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2006	고은정	반동조, 전문가 자문위원, 교육 내용, CO-RO기법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기본예행연구 프로그램, 교육 내용, 전문가 자문위원, 교육 내용, CO-RO기법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학17	0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2013	김소희	비동등성 전후 무작위 실험 연구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SPSS/PC+1 3.0, Mann-Whit ney U test, 카이제검, Kolmogorov -Smirnov test, Repeated measures ANOVA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간사(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의문(간사)의 필요성

Figure 1. Dissertation List (continued)

● 정신의학 분야와 관련된 국내 간호연구의 고찰 ●

ID	제목	출처	발행 연도	저자	연구 설계	연구 대상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도구	자료 분석	결과	의의	연구 결과	지론
학1	○ 정신인식장애환자의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인식장애환자의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한정신약학회지	2001 20(1) 22-31	서유진, 김혜영	비행중상 대규모 전후 유사 실험 연구	서울 강동도 소재 정신보건기 관내 5곳과 서울구로병원 1곳에 등록된 정신인식장애환자 100명(남자 55명, 여자 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대상자 중 70명(70%)은 연구 참여를 동의하고, 30명(30%)은 연구 참여를 거부함 연구 기간 동안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연구 종료 후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약물 복용률,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PSS 9.1, Wilcoxon rank sum test, Fisher's exact test, Z-test, repeated ANOVA, Bonferroni correction	medication knowledge, perceived benefit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medication compliance	연구대상자를 50명씩 2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 실험군: 약물 복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조군: 약물 복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미제공 연구 기간 동안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연구 종료 후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perceived benefit, self-efficacy, social support는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medication knowledge는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medication adherence는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학2	○ 정신인식장애환자의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인식장애환자의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정신약학회지	2009 15(2) 285-92	서유진, 김혜영	비행중상 대규모 전후 유사 실험 연구	B1기 정신인식장애환자 100명(남자 55명, 여자 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대상자 중 70명(70%)은 연구 참여를 동의하고, 30명(30%)은 연구 참여를 거부함 연구 기간 동안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연구 종료 후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약물 복용률,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PSS 11.0, Kruskal-Wallis ANOVA, Bonferroni test	약물 복용률,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를 50명씩 2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 실험군: 약물 복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조군: 약물 복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미제공 연구 기간 동안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연구 종료 후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학3	○ 정신인식장애환자의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인식장애환자의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정신약학회지	2007 16(3) 276-87	서유진, 김혜영	비행중상 대규모 전후 유사 실험 연구	B1기 정신인식장애환자 100명(남자 55명, 여자 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대상자 중 70명(70%)은 연구 참여를 동의하고, 30명(30%)은 연구 참여를 거부함 연구 기간 동안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연구 종료 후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약물 복용률,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PSS 10.0, Mann-Whitney U test, ANCOVA	약물 복용률,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를 50명씩 2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 실험군: 약물 복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조군: 약물 복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미제공 연구 기간 동안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연구 종료 후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학4	○ 정신인식장애환자의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인식장애환자의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정신약학회지	2007 19(5) 809-18	서유진, 김혜영	비행중상 대규모 전후 유사 실험 연구	B1기 정신인식장애환자 100명(남자 55명, 여자 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대상자 중 70명(70%)은 연구 참여를 동의하고, 30명(30%)은 연구 참여를 거부함 연구 기간 동안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연구 종료 후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약물 복용률,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PSS PC+ Tz, paired T-test, Wilcoxon rank sum test, ANCOVA	약물 복용률,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를 50명씩 2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 실험군: 약물 복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조군: 약물 복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미제공 연구 기간 동안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연구 종료 후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학5	○ 정신인식장애환자의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인식장애환자의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한정신약학회지	2006 9 85-105	서유진, 김혜영	비행중상 대규모 전후 유사 실험 연구	B1기 정신인식장애환자 100명(남자 55명, 여자 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대상자 중 70명(70%)은 연구 참여를 동의하고, 30명(30%)은 연구 참여를 거부함 연구 기간 동안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연구 종료 후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약물 복용률,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PSS PC+ Tz, paired T-test, Wilcoxon rank sum test, ANCOVA	약물 복용률,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약물 복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를 50명씩 2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 실험군: 약물 복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조군: 약물 복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미제공 연구 기간 동안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연구 종료 후 2주간 추적 관찰 실시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Figure 2. Domestic Journal Paper List







구, 상관성 연구, 실험연구, 질적 연구,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등으로 분류하였다.

- 대상자
- 측정도구 및 관련 변수
- 실험연구에서 사용된 중재 프로그램 유형
- 대상 논문의 연구결과 동향 분석

### III. 연구 결과

#### 1. 발표시기별 정신약물 관련 연구 분포 및 연구설계 유형별 분류

1992년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인 변비완화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연구한 학위논문 (Yang, 1992)이 발표되고 1993년 정신분열병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복용양상에 대한 조사연구 (Kim, 1993)가 한국간호과학회지에 게재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7월 현재까지 약물복용과 관련된 논문이 비록 적지만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실험연구들은 약물교육을 제공하여 증상관리 및 약물복용태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이었으며, 약물부작용을 호전시키는 논문들이 실험연구 20편 중 5편으로 편수는 적으나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었다. 또한 2006년부터는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있었으며, 발표시기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34편의 대상 논문을 연구 설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유사실험 연구가 20편(5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험 연구는 1편만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 (단일집단 사전사후 반복측정 설계)이고 나머지 19편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였다. 또한 서술적 조사연구가 6편 (17.7%)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3편(8.8%), 질적연구 3편 (8.8%)으로, 질적연구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론 (Song, 2010) 과 일상생활 기술지 연구방법 (Kim, 2007),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한 귀납적, 서술적 연구방법 (Yun et al., 2006)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2편의 논문은 모형 & 프로그램 개발연구 (5.9%)였다 (Table 1).

#### 2. 대상자 현황

약물복용 관련 연구의 대상자는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13편의 연구 (39.4%)와 정신과 외래에서 통원치료를 약물처방을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10편(30.3%), 병동이나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항정신약물을 복용하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15.2%)이 있었다. 그 외 대상자는 낮병원을 다니는 대상자, 시설에 입소해 있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약물 복용자 등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 (각각 1편씩, 3.0%)과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환자 대상으로 한 연구가 2편 (6.1%)이 있었다. 대부분의 자료들이 자료수집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입원병동이나 병원외래를 통해서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분석된 논문 중 특정한 약물을 지정한 경우는 Olanzapine & Risperidone 복용환자 2편, Haloperidol & Benzotropine 복용환자 1편,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1편 등이 있었다. 약물복용을 하는 대상자 외에도 환자와 더불어 그의 가족을 대상으

Table 1. Published Year and Research Methodology of Included Studies

Year Published	Number of Articles (%)	Design				
		Descriptive study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Quasi-experimental study	Qualitative study	Model or program development research
~1995	3 ( 8.8)	2		1		
1996~2000	8 ( 23.5)		1	7		
2001~2005	13 ( 38.2)	4	1	7		1
2006~2010	9 ( 26.5)		1	4	3	1
2011~2013	1 ( 3.0)			1		
	34 (100.0)	6 ( 17.7)	3 ( 8.8)	20 ( 58.8)	3 ( 8.8)	2 ( 5.9)

로 삼은 연구 2편, 대상에 간호사를 포함시킨 연구도 1편 있었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약물 및 증상관리 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가 논문 16편에 적용되어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약물관리 및 증상관리에 대한 지식척도는 연구자들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에 준하여 항목을 자체

### 3. 주요 측정도구 및 관련 변수의 분석

Table 2. Participants in Included Studies

Participants	Number of Articles(%)
Mentally disordered taking antipsychotic drugs	5 ( 15.2)
Psychiatric in-patients (in psychiatric ward)	13 ( 39.4)
Psychiatric in-patients (in the psychiatric day hospital)	1 ( 3.0)
Psychiatric out-patients	10 ( 30.3)
Schizophrenic patients registered at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2 ( 6.1)
Institutionalized psychiatric patients	1 ( 3.0)
Schizophrenic patients reside in community	1 ( 3.0)
Family	2*
Nurse	1*

\* number : overlapping, possible

Table 3. Instruments and Variables of Included Studies

Variables	Instruments	N (overlapping)
Knowledge of Medication & Symptoms Management	Medication Knowledge (Park)	2
	Knowledge of Medicine (Shin)	1
	Medication Knowledge (Seo)	2
	Medication Knowledge (Hwang)	1
	Medication Knowledge (Jung)	1
	Medication Knowledge (Kwon)	1
	Knowledge of Medication & Symptoms Management (Song et al)	2
	Medication & Symptom Management Knowledge (Choi)	1
	Knowledge about Drug and Symptoms Management (Kim)	1
	Practice about Drug and Symptoms Management (Kim)	1
	Knowledge of Medication (Shon)	1
	Knowledge of Medication (Yeo et al)	1
	Knowledge of Medication and Symptom Management (Lee & Kim)	1
		16
Knowledge of Disease	Variables related to Disease (Kim)	1
	Knowledge of Disease (Shin)	1
	Patient's Knowledge of Psychotic Disease (Song)	1
	Knowledge of Psychiatric Illness (Shon et al)	1
	Insight and Treatment Attitude Questionnaire: ITAQ (McEvoy)	1
		5
Side Effects	Liverpool University Neuroleptic Side Effect Rating Scale: LUNSERS (Jung et al)	1
	Constipation Assessment Scale: CAS (McMilan & William)	2
	Perceived Constipation (Yang)	1
	Frequency of Bowel Sound	1
	Number of Laxative taken	1
	Weight / BMI	3
	Metabolic Risk Factor: BMI, Waist Circumference, BP (Kim)	1
		10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변수는 약물이행에 대한 것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Shin (2001)이 개발한 약물복용이행척도가 가장 빈번히 사용되었고, 여기에는 질문지 외에도 0~100점까지

의 시각적 상사 척도로 약물복용 이행을 확인하는 연구 (Lee, 1998; Shon, 2009)도 있었다. 그 다음 순서는 약물부작용 변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판 리버풀 항정신병약물 부작용 평가척도(LUNSERS)

Table 3. Instruments and Variables of Included Studies (continued)

Variables	Instruments	N (overlapping)
Drug Attitude	Drug Attitude Inventory: DAI-10 (Hogan & Awad)	5
	Attitude of Medication (Yeo et al)	1
		6
Medication Compliance	Medication Compliance (Lee)	2
	Medication Compliance (Whang)	1
	The Degree of Medication Compliance (Shin)	5
	Knowledge about Medication (Song)	1
	Compliance Score (Lee)	1
	Antipsychotic Medication Questionnaire (Kim)	1
		11
Dietary Habits	Dietary Observation Record / Diet Diary	1
	Diet & Activity Record (Kim et al)	1
		2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Son)	1
	WHO Quality of Life-BREF: WHOQOL-BREF (Min et al)	1
		2
Self-Care Activity	Self-care Compliance (Song)	1
	Self-Care Activity (Yoo)	1
		2
Problem Solving Ability	Problem Solving Inventory (Yoo)	1
Health Belief	Perceived Threat (Seo)	1
	Perceived Benefits (Seo)	3
	Perceived Sensitivity (Seo)	1
	Perceived Severity (Seo)	1
	Perceived Barriers (Seo)	2
		8
Self-efficacy	The General Self Efficacy (Rho)	3
	The Specified Self Efficacy (Rho)	1
		4
Social Support	Personal Resources Questionnaire: PRQ85 (Kim)	1
	Social Support (Kim)	1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Seo)	2
		4
Symptoms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PANSS (Chun)	3
	Severity of Psychiatric Symptoms (Overall & Gorham)	2
	Relapse Warning Symptoms Scale (Kim)	2
		7
Social Skill	Social Behavior (SB) Scale (Hong)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IRS) Scale (Moon)	1
Self-Esteem	Self-Esteem (SE) Scale (Hudson)	1
Role of curer	Role of Care-giver on Medicine Application (Shin)	2
Depression	Korean-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K-HDRS)	1
Substance Use	Substance Use (Ministry Culture, Sports & Tourism)	2

(Jung et al., 2002)와 신체적인 부작용인 체중증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체중을 측정하고 정신질환자에게 흔한 부작용인 변비사정을 위해 변비사정 척도 (McMillian & William, 1989)를 사용하였으며, 가장 최근 연구에서는 BMI, 허리둘레, BP 등을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로 정의하고 이를 관련변수로 사용한 논문(Kim, 2013)도 있었다. 증상을 알아보는 척도도 연구에서 7번 사용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양성, 음성 증상 척도와 심각성 척도, 재발 경고증상에 대한

척도 등이 이용되었다.

약물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 Hogan, Awad와 Eastwood (1983)의 Drug Attitude Inventory (DAI)를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질병에 대한 지식을 묻는 척도가 5회 사용되었으며, 또한 삶의 질, 자가간호활동, 문제해결능력, 건강신념,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사회행동, 대인관계, 자존감, 우울감, 물질사용 등의 다양한 관련 변수들이 정신약물 관련 연구에 사용되고 있었다(Table 3).

Table 4. Intervention of Included Studies

Field	Program Types	N(%)	Materials	
Education	Group	6(30.0%)	Lecture, Role play, Introducing participants experiences	
	Individual	1 (5.0%)	3 sessions per week and 40 min in each session, total 7 sessions	
	Educational program for medication & symptom self-management	Home visiting education	1 (5.0%)	Pamphlet & Drug card, Once a week for 3 weeks, 50~60 min per a week
		Web-based education with face to face	1 (5.0%)	Experiment I: Web-based program (50min) Experiment II: Web-based (25min), Face to face (25min) Control - Face to face (50min)
		Online medication adherence enhancement program	1 (5.0%)	Using online education contents (Web-site /Laptop and CD)
Drug Education	Group	3(15.0%)	Pamphlet & Drug Card	
	Video-aided medicinal education	1 (5.0%)	15min	
Integrated Mental Health Care Program	Patients	1 (5.0%)	6 sessions weekly and 90 min in each session	
	Families		2 experimental groups(patients, families), 2 control groups	
Drug Side Effect	Fluid intake, Dietary Fiber Supplement and Abdominal muscle Exercises	1 (5.0%)	Experimental group I - Fluid intake (1500cc/daily) & Abdominal muscle exercise Experimental group II - Fluid intake & Dietary Fiber Supplement (cellulose 10g & citrus pectins 5g) & Abdominal muscle exercise	
	Abdominal meridian massage	1 (5.0%)	Two weeks, 10-15 min each time & 10 times in total	
	Weight control program		2(10.0%)	Diet therapy, exercise & behavior modification for 4 weeks
				Diet therapy exercise, behavior modification, and mediation exercise for 3 weeks
	Network program	1 (5.0%)	Network program for 6 weeks after program for preventing obesity	
Total		20(100%)		

#### 4. 중재 프로그램 유형

중재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을 제공하는 중재와 약물 부작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었다. 약물 및 증상관리 교육 프로그램은 초반에는 소책자와 유인물, 약카드 등의 인쇄 매체를 사용한 교육을 제공했으며, 추후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대상자의 빠른 피드백과 적극적인 참여 격려를 위해 역할극, 경험 발표 등의 다양한 수업 방법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해 약물교육을 제공하는 사례(Yeo et al., 2001)부터 좀 더 발달된 매체인 온라인상에 교육 미디어를 업로드 시킨 후 대상자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 인터넷 강의를 듣게 하는 등 정신보건시설의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않아 소외되고 방치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대상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Seo & Kim, 2009; Shon, 2009)들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물 부작용을 다루는 중재 프로그램 연구는 변비를 조절하는 프로그램 2편과 비만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3편이 소개되었다. 변비 완화를 위해서는 복근강화운동과 수분 및 식이섬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Yang, 1992)과 복부 경락마사지를 통해 변비완화를 유발하는 프로그램 (Kim & Cho, 2007)이 소개되었으며,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주요한 건강문제인 비만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과 약물교육이 포함된 체중조절 프로그램 (Kim, 2013; Lee & Kang, 2001),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게 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Kim et al., 2005) 등이 발표되었다(Table 4).

#### 5. 주요 연구 결과의 동향 분석

정신약물 복용과 관련 있는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를 서술적 조사연구, 중재연구, 질적연구로 나누어 Table 5에 정리하였다. 조사 및 상관관계 연구분야의 주요 결과는 약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약물복용 이행 정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연구들은 약물지식 및 증상관리를 호전시키는 교육프로그램과 약물부작용을 다루는 중재연구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약물교

육을 받은 실험군들이 대조군에 비해 약물 및 증상관리에 대한 지식정도, 약물복용 이행점수 외에도 기타 여러 변인(자가간호활동, 삶의 질, 돌봄제공자 역할 점수 등)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다양한 교육매체의 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에서 다루어진 약물 부작용은 주로 변비와 체중증가(비만) 문제였으며, 변비완화 프로그램과 체중조절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부작용의 호전을 보였다. 질적연구 결과로는 조현병 여성 환자의 항정신성 약물복용 체험에 대한 연구(Song, 2010)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항정신성 약물 복용체험(Kim 2007), 정신질환자의 약물복용 경험(Yun et al., 2006)을 심층면담을 통해 다양한 질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 외에도 조현병 환자의 약물이행 설명모형을 제시한 모형개발 연구(Seo, 2001)에서는 약물 지식, 증상의 심각성, 사회적지지, 지각된 유익성, 물질 사용 등이 약물이행을 33% 설명하고 있었다. 약물이행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지각된 유익성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고, 증상의 심각성은 직접효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과에서 유의하였고, 물질사용은 약물이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분장애 환자를 위한 약물교육 CD-ROM 개발과정을 정리한 연구(Ko, 2006)에서는 CD-ROM에 수록된 기분장애 약물교육 프로그램에 교육목표, 약물의 치료효과, 약물의 종류, 부작용과 부작용 극복방법, 약물과 술, 담배, 커피, 음식과의 관계, 일반적인 약물 복용방법, 약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 평가를 위한 질문지 등이 포함되었다(Table 5).

### IV. 논 의

정신약물 복용에 대한 연구가 처음 게재된 1992년 이후 대상논문을 전수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증하는 정신과 약물치료에 대한 관심에 비해 간호연구자들이 수행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치료가 의사들의 영역이라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약물복용 관련 간호는 간호사들의 주요 업무이므로 추후 심도 있고 창의적인 연구가 더 많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able 5. Summary of Findings of Included Studies

	Design	Findings
Descriptive and correlational study	➤	The degree of medication complianc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ttitude toward medication, self efficacy, and social support.
	➤	Satisfaction with family support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schizophrenic patients' medication compliance.
Intervention studies	❖	The experimental group who took the medication & symptom management education has a higher knowledge level and medication compliance than the control group who didn't take education.
	❖	Subjects who attended the medication and symptom management education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group in self-care activity, quality of life, and care-giver role.
	❖	A web-based learning program is more effective education that increases knowledge of medication & symptom management and reduces warning symptoms than face to face program.
	❖	Fluid intake, dietary fiber supplement and increasing exercises for strengthening abdominal muscle is effective in relieving antipsychotic drug-induced constipation in schizophrenics.
	❖	Abdominal meridian massage decreased number of medicine taken to relieve constipation in psychiatric patients who taking anti-psychotic drugs.
Drug side effect	❖	After the network program for preventing obesity of patients taking anti-psychotics or antidepressants, caloric intake per day of the intervention group decreased.
	❖	The weight control program seemed to be loosening or retaining weight at least in four weeks.
The lived experience of the women with schizophrenia taking antipsychotic medication	☞	The typical medication gave them a feeling of severe physical inconvenience: severe effect on femininity through the side effects like amenorrhea, galactorrhea and overweight. Also, the medication gave the a lot of obstacles in carrying out the role of Mother.
	☞	Denying anti-psychotics medication not to be branded as mental illness: denial to be mentally ill patient, and as forceful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through potential resistance
Qualitative studies	☞	Enduring difficulties from medication: side effect of medication, and difficulty in social relationships
	☞	Recurrence experience related to medication: through the patients took medication continually or because of the suspension of medication
	☞	Finding oneself living along with medication: effect of medication and feeling better in social relationships
	☞	Self-reflection on maintenance of medication after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feeling the need for medication
The experiences of mentally ill patients taking psychotropic medication	☞	Disbelief in medicine
	☞	Physical discomfort
	☞	Social stigma
	☞	Rehospitalization due to medication adherence
	☞	Social disability
	☞	Relax in body and mind
☞	Confidence of need of taking medicine	

연구설계 유형별 분류 결과 실험연구는 전체 약물관련 간호연구의 58.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교육을 제공한 후 약물에 관한 지식이나 약물에 대한 태도의 개선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교육의 매체와 방법론적인 부분은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변수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 효과를 증합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분석의 대상자료 중 질적연구가 3편이 포함되었는데, 그중 여성조현병 환자의 약물복용체험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에서 정형약물을 복용하는 여성은 심각한 신체적 불편감을 경험하였고, 비정형약물을 복용하는 여성은 무월경, 유즙분비, 과체중 등의 부작용으로 여성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 차별화된 약물간호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Yun 등(2006)과 Kim (2007)의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항정신성 약물 복용 경험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처음에는 stigma를 피하기 위해 약물을 거부하고, 치료가 진행되면서 약물 부작용을 견디어내는 경험과 치료 지속시 나타나는 재발경험, 약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약물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성찰해나가는 일련의 회복과정의 의미가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약물에 대한 환자 및 가족의 태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도출된 개념들이 추후 약물복용과 관련 있는 간호중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분석 결과 정신과 병동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39.4%, 외래 환자 대상 논문이 30.3%, 낮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3%로, 이제까지 연구된 논문의 약 3/4이 병원의 환자 중심이었다. 항정신병 약물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심한 증상이 대부분 조절되어 외래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고, 탈원화 정책으로 인해 만성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지역사회로 나오게 되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아 환자의 재발을 막고 정신사회재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가 환자나 지역사회 시설 중심의 약물복용 연구가 더 많이 시도되어야 하겠다. 이 점이 정신간호와 보건간호 영역의 간호사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약물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저자에

따라 약간씩 수정된 채 총 16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측정 상황의 다양함을 나타내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약물 지식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현상이기도 하다. 즉 약물과 관련된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약물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초기 연구에서는 약물교육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 약물 및 증상관리, 부작용관리 등을 강의, 세미나, 전화교육, 소책자 제공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나, 점차 다양한 교육매체 즉 비디오약물교육으로 시작하여 CD-ROM 개발, 최근엔 웹기반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외래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내원하지 않고 있는 지역 사회 정신질환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접근가능성이 뛰어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초기에 입원 대상자들에게 제공되었던 교육이 위의 매체들의 개발로 인해 가정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입원환자 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 환자, 낮병원, 사회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대상자들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은 최근 정신재활 프로그램에서 환자 중심의 targeting intervention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 적절한 시도라고 여겨진다.

정신간호사의 주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약물부작용에 대한 관리는 분석 논문에서 제시된 변비와 과체중 관리 외에도 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투약간호 업무와 관련된 간호학적 접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다룬 후속 연구들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매체의 발전에 따라 단기교육 효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규명하는 중단 연구와 소규모가 아닌 대단위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의 추적관찰 연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환자들이 약물과 관련하여 호소하는 신체적 불편감이나 부작용, 사회적 장애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연구,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는 연구뿐만 아니라 약물 중단 경험과 관련해서 겪는 재발이나 증상의 악화 등에 대해서도 연구함으로써 약물 복용에 대한 대상자들의 동기화와 약물중단에 따르는 심각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

련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정신간호와 보건간호가 함께 보살펴야 할 대상자, 건강 문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간호실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약물복용 간호에 대한 연구들이 현저하게 적고 대상자의 폭이나 연구유형의 폭이 한정적이므로 앞으로 약물관련 연구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간호학술지 및 의학, 보건 관련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위논문으로 출판된 정신약물 복용 관련 연구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신약물에 대한 간호사들의 학문적 관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미래의 정신약물 간호연구 방향 설정에 지침을 삼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분석대상은 처음 게재된 1992년부터 2013년 7월까지의 논문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전체 대상 연구논문은 총 34편이었다. 선정된 논문들은 발표시기 및 연구설계, 대상자, 관련변수에 따른 측정도구, 중재 유형, 연구결과 동향별로 분류하였다.

1992년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인 변비완화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연구한 학위논문이 발표되고 1993년 정신분열병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복용 양상에 대한 조사연구가 한국간호과학회지에 게재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적은 수의 논문이지만 꾸준히 발표되어왔다. 연구 설계별 분류 결과는 유사실험연구 58.8%, 서술적 조사연구 17.7%,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8.8%, 질적연구 8.8%,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5.9%였다. 분석 대상 논문의 약 72.9%가 병원 입원환자, 외래환자, 그리고 낮병원 환자이어서, 지역 사회 관점에서 대상자들의 약물복용 문제를 탐구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약물관리 및 증상관리에 대한 지식척도, 약물복용 이행척도, 약물에 대한 태도, 부작용과 관련된 척도와 기타 여러 중재변수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중재 프로그램은 주로 약물 및 증상관리 교육 프로그램 제공 후 지식 및 약물태도의 호

전을 보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약물교육 내용의 변화보다는 다양한 교육매체를 적용한 방법의 변화를 둔 연구들이었다. 또 다른 중재 연구로는 변비와 비만 부작용을 다루는 연구들이 있었다. 간호학적 측면에서 약물 부작용 관리가 간호사의 주요한 역할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 매우 아쉬웠으며, 정신간호 실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약간호에 대한 다양한 간호학적 접근과 대상자들의 약물복용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적 연구를 통해 약물 복용에 대한 동기화나 약물중단에 따르는 심각성 등과 같은 정신약물과 관련된 간호현상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인터넷을 통해 대상 논문을 검색하였으므로 학위 논문을 비롯한 일부 논문들이 누락되었을 수 있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유의해야 하며, 최근 국내 연구결과를 해외학술지에 게재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정신약물 관련 연구들도 추후 연구에서는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양적인 틀을 사용해 분석함으로써 질적 내용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것이 제한점이라 할 수 있지만, 간호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정신약물 관련 논문 동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 References

- Hogan, T. P., Awad, A. G., & Eastwood, R. (1983). A self-report scale predictive of drug compliance in schizophrenics: Reliability and discriminative validity. *Psychological Medicine*, 13(1), 177-83.
- Hong, M. N. (2004). *A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among schizophrenics attitude toward medication and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toward them, and the degree of their medication compli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Hwang, E. (2003). *Effect of a educational*



- program for medication & symptom self-management on schizophrenic in-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Jung, H. Y., Joo, Y. H., Shin, H. K., Chung, E. K., Kang, U. G., Roh, M. S., & Kim, Y. S. (2002). A validation study of Korean-version of Liverpool University Neuroleptic side effect rating scale(LUNSERS) - Liverpool University Neuroleptic Side Effect Rating Scale (LUNSERS). *The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1(1), 138-145.
- Kang, M. O. (2010). *Quality of life, side effect of anti-psychotics, attitude toward drug of mentally disorder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I., & Cho, Y. N. (2007). The effects of abdominal meridian massage on constipation in institutionalized psychiatric patients taking antipsychotic drug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9(5), 809-818.
- Kim, J. O. (2007). *The experiences of anti-psychotics medication in-patients of mental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Kim, S., Sung, K. M., Hwang, Y. S., & Kim, S. J. (2005). Effects of a network program for preventing obesity of patients taking anti-psychotics or antidepress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3), 526-534.
- Kim, S. H. (2013). *Effect of weight control program on metabolic risk factor, depression, and drug attitude of psychiatric inpatients toward atypical anti-psychotics.* Inha University, Incheon.
- Kim, T. K. (1993). Analysis of variables influenced on the patterns of anti-psychotics medication by schizophrenic out-patients: Using the technique of two group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3(1), 130-141.
- Ko, E. J. (2006). *Development of a CD-ROM program for medication education of mood disorders.* Unpublished Ma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K. H. (1998). *A study on the medication compliance of psychiatric patients being followed in a out-patient clinic.*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K. H., & Kang, H. M. (2001). Effect of weight control program for psychiatric inpatient on atypical anti-psychot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4), 548-563.
- Lee, S. M., Paik, J., W., Choi, Y., Kang S. H., & Park, J. I. (2012). Reviewing and constructing clinical trials database for psychotropic drug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23(1), 11-16
- McMillian, S. C., & Williams, F. A. (1989).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constipation assessment scale. *Cancer Nursing*, 12(3), 183-188.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2013 Mental health program guidelines.* (11-1352000-000954-10).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Ruscher, S. M., Wit, R., & Mazmanian, D. (1997). Psychiatric patients' attitudes about medication and factors affecting non-compliance. *Psychiatric Services*, 48(1), 82-85.
- Seo, M. A. (2001). *A structural equation model explaining medication compliance of schizophrenia.* Unpublished Doctoral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Seo, M. A., & Kim, H. L. (2009). Effectiveness of an 'Integrated medication adherence enhancement program for persons with schizophrenia' by using online education contents. *Korean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20(1), 22-31.
- Shin, G. S. (2001). *Effect of home visit education, on the drug compliance for chronic schizophrenics in house and the care-giver's ro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Shon, K (2009). Effectiveness of a web-based learning program for medication and symptom management education of the schizophrenia pati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2), 285-292.
- Shon, K. H., Bae, J. Y., & Jun, J. Y. (2001). Psychiatric outpatients' knowledge of illness and medication who had received symptom and medication instru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4), 699-713.
- Song, E. J. (2010). *The lived experience of the women with schizophrenia taking antipsychotic medication*. Unpublished Doctoral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Usher, K.(2008). Taking neuroleptic medications as the treatment for schizophrenia: A phenomenologic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10(3),145-155. doi: 10.1046/j.1440-0979.2001.00205.x
- Wu, E. Q., Birnbaum, H. G., Shi, L., Ball, D. E., Kessler, R. C., Moulis, M., & Aggarwal, J. (2005). The Economic Burden of Schizophrenia in the United States in 2002.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6(9), 1122-1129. doi: 10.4088/JCP.v66n0906
- Yang, S. (1992). Effects of fluid intake, dietary fiber supplement and abdominal muscle exercise on antipsychotic drug-induced constipation in schizophrenics. *The Journal of Catholic Medical College*, 45(4), 1-14.
- Yeo, M. R., Song, I. S., Yu, J. H., Kim, M. S., & Lee, J. H. (2001). The influence of video-aided medicinal education on the medication knowledge and attitudes of schizoids. *Clinical Nursing Research*, 6(2), 47-62.
- Yun, J. H., Yun, Y. H., Kim, U. W., Kim, Y. M., Park, S. J., Han, S. C., & Cho, H. S. (2006). Study on the experience of taking medicine in psychiatric patients. *Clinical Nursing Research*, 9, 85-105.

## Review of Nursing Research on Psychotropic Drugs in Korea

**Lee, Jongeu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Sangji University)  
**Bae, Jeongy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Im, Sookbin**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nursing research psychotropic drugs that has been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Another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rends in nursing research on psychotropic drugs and mak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in Korea.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degree theses and original articles on psychotropic drug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from 1992 to 2013. Thirty-four articles were analyzed of which at least one nursing author participated in the study. Search keywords were “psychotropic drug” and “mentally ill patient & medication”. **Results:** For the research design, quasi-experimental study was 58.8%, descriptive study was 17.7%,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8.8%, qualitative study was 8.8% and model development research was 5.9%. Variables measured were knowledge of medication & symptom management, knowledge of disease, side effects, drug attitude, medication pattern, diet & activity, quality of life, and self-care. **Conclusion:** Despite recent increased interest in psychiatric medication, research on psychotropic drugs remains very limited, particularly regarding findings from a nurse’s perspective. More research project should be designed to develop programs for the treatment of side effects from a nursing view-point.

**Key words :** Nursing research, Psychotropic drugs, Mentally ill persons